

2016년도 국제교류 2차 공모사업 분야별 및 통합 심의 총평

문학분야

○ 일시 : 2016. 5. 11(수) 15:00 ~ 16:3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덕규, 박충식, 윤부한, 이태수, 장석주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 문학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5건)',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건)',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10건)' 등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들 3개 유형사업에 응모된 전체 신청건수는 16건이고, 신청금액은 204,600,000원이었다.

지원심의는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당일 위원들 간의 전체적인 논의 및 개인별 채점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회의일 전에 보내준 16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집행계획 등 지원신청서를 각자 사전에 검토하였다.

심의회의에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논의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자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한국문학의 확장성에 기여하고 예술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불수교 행사 관련으로 기획된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사업과 한국-인도 문학예술인 학술대회를 기획한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의 경우 행사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뚜렷하다. 또한 지역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아동문학연구센터>와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포럼>의 신청 사업은 '주류 문학' 및 '주류 교류 국가'에서 벗어나 경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2차>

이번 지원신청자는 해당 레지던스에 기 참가했던 경험이 있으며, 현지 작가 연구를 위한 참가 신청이어서 사업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레지던스 참가 기획의 균등성이라는 점에서도 동일인에 대한 재차 지원은 부적절하며,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역량있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2차〉

기획형 해외레지던스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언어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작가들이 동일 프로그램에 다수 지원함으로써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각 레지던스 프로그램 성격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작가위주로 선정했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6. 5.13(금), 13:30~17:00
- 장소 : 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미진, 김찬동, 류지연, 안미희, 호경윤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야 2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지원신청건수는 총 140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2,910,413,414원이었다((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은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함).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총 140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별로 평가표를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분야는 신청 건수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선정 및 심의기준으로서 고려한 점은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 주최와 사업 장소의 적정성, 국제적 파급효과였다. 시각예술의 범위를 넓혀 건축, 영상, 다원적 성격까지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국제교류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교류하는 지역, 대륙의 분포와 그 확산성을 고려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교류의 심도와 시각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살펴보고 개인전의 경우 초청 기관의 지명도와 미

술계에 기여할 효과가 큰 경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양한 장르와 내용의 신청서가 많아 고무적이었으나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는 전시나 프로젝트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해외레지던스 초청기관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신청 작가의 전시 경력 및 예술적 성과를 보되, 가급적이면 새롭게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활동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수행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이 우수한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동시에 국가별 안배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레지던스를 우리 작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 핀란드의 히압(HAIP)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년에 비해 신청인들의 수준이 다소 하향 평준화되어 아쉬웠으나 작가 레지던스에 비해 큐레이터 레지던스는 흔치 않은 기회로서, 가급적 향후 국내·외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신진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그간의 활동을 살펴보고 선정했다. 추후 본 사업에 대한 기획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기획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 일시 : 2016. 5. 20(금), 10:00~12: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미혜, 박민선, 송현옥, 안호상, 윤미경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연극분야 제2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ARKO-PAMS협력지원'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 사업의 총 신청건수는 4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319,752,674원이었다.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45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

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심의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재확인했다.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파급효과(20%)였다. 이어 총 38개 신청사업에 대해 심의기준에 의거해 순서대로 논의하며 각 심의위원별로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공유했다. 심의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협력기관과 교류조건이 양호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교류국가 및 권역의 안배와 지역소재의 단체(개인) 또한 국제교류의 기회 또한 고려했다. 이를 통해 총 11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많은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선정된 사업 또한 신청한 금액에 대비해 충분한 지원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본 국제예술교류지원을 계기로 계획한 사업이 훌륭하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를 고려해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신청사업을 검토했다. 우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 사업성과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계에 환류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 이를 통해 4건의 지원대상을 결정했으며,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가 향후 훌륭한 국제예술교류의 초석이 되기를 응원한다.

<ARKO-PAMS 협력지원-2차>

ARKO-PAMS 협력지원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를 심의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 목적에의 부합성을 검토했다. 연극분야는 1개 사업이 지원 신청했으며,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6. 5. 24 (화), 14:00~17:3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신아, 남수정, 안애순, 이동우, 장선희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무용분야 제2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44건의 '국제예술교류지원', 9건의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건의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그리고 7건의 'Arko-Pams협력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 신청건수는 62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313,000,000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은 각각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분야의 예술가와 기획 그리고 무용평론관계자에서 각 1명씩으로 이루어져 예술성은 물론, 교류 예정인 대상(해외 페스티벌 등)의 권위 및 중요도도 고려했다. 사무처에서 심의 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62건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심의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기 채점했고, 분야별 심의안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무용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44건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17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참신성에 기반을 두고 작품의 주제와 예술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향후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신진 안무가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며 신청지역이 수도권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했다. 예산배정에서는 신청금액 한도 내에서 젊은 무용가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노력했다.

또한 무용 장르 내 세부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예술 춤 뿐 만아니라 스트리트댄스 등의 대중 춤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심의하고자 했으며, 무용과의 경계가 모호한 퍼포먼스 장르에도 무용의 폭넓은 발전을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동시에 신청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간 해외 활동 경험 이력을 참조하였다. 본 심의에서는 1차 심의 기준을 존중하여 단순 해외 공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무용 담론을 다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9건 신청되었으며, 그중 5건을 선정하였다. 신청 단체나 개인 모두 예술성이라든지 지명도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쉽게도 동일 사업의 중복 신청, 서류미비 등의 서류상의 결격이거나 예정하는 레지던스의 일정상 해당 안무가의 하반기 작품 활동에 미쳐질 영향 등을 고려하였음을 밝혀둔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에는 총 2건이 접수 되었으며, 충분한 논의 끝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건을 선정하였다.

<ARKO-PAMS 협력지원>

무용분야 'ARKO-PAMS-2차' 사업은 총 7건이 신청되었다. 신청단체 및 개인이 모두 젊은 예술가들이기도 하며, 해외 공신력 있는 축제에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 모두에게 한국 무용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7건 모두를 선정하였다.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일시 : 2016. 5. 20(금), 14:00~17: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2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재성, 박정선, 이기균, 정태봉, 태승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 음악 분야 제1차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의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61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882,370,000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송부한 61건의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가배정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음악 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에는 총 60건이 신청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각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별 토론을 거쳐 각자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되, 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단계별 과정을 참조하여 수행역량과 사업의 우수성,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국제교류사업으로서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신청사업 수준이나 성격에서 크게 차별성이 없을 경우 지역 안배

및 아동 및 청소년 대상사업을 고려하였고, 초연이나 처음 신청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나 예산내역이 미흡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음악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 예술가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이력 등을 검토하였고, 발전 가능성 및 레지던스기관의 공신력,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신청자의 우수한 이력을 고려하여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 분야

- 일시 : 2016. 5. 21(토), 10:00~12:3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주, 박재천, 이석규, 이화동, 조주선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 1차로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67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773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67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에는 총 54건이 신청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주요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특히, 교류와 진출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계획안을 제출한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남북교류사업과 세계대표공연예술축제 초청·참가사업 및 현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지원 우선순위에 두고, 해외동포 대상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되도록 배제하였다.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 지역소재단체 및 세부장르,

사업국가 안배, 지원 수혜이력 등 세부기준을 두어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지원예정액은 항공료와 운송비 위주로 책정하였다.

신청단체 중 본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이거나, 지원금 의존도가 높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보다 충실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해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사업에 접근하기를 바라며, 수혜단체들의 사업성과가 공유되어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에는 총 5건이 신청되었다. 신청한 예술가 대부분이 참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실한 계획안을 제출하였기에 최대한 많은 선정자가 나오도록 배려하였고, 지원 수혜이력 또한 고려하였다. 미래의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 만큼 본 사업에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2차' 사업에는 총 4건이 신청되었고, 신청예술가의 프로그램 참여 능력과 기대되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국가 간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예술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ARKO-PAMS협력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ARKO-PAMS협력지원-2차' 사업에는 총 4건이 신청되었다. 사업주최측의 초청조건과 실현 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4건 모두 1차 심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통합심의

- 일시 : 2016. 5. 27(금), 14:00~16: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장르순) : 윤부한(문학), 호경윤(시각예술), 김미혜(연극), 이동우(무용), 박재성(음악), 이석규(전통), 박향주(국제)

2016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 통합심의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6개 장르의 국제교류지원, 해외 레지던스 (기획형)해외레지던스, ARKO-PAMS, 국제교류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각각 통합 심의하였다.

각 분야별 심의 위원들이 1차 선정 과정과 선정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예기금의 목적과 기준을 논의하고 효율적으

로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 자진 포기 1건과 국제교류재단과의 중복된 사업 1건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국제교류사업 수행 역량(40%), 국제교류 플랫폼의 우수성(30%), 국제교류사업의 국내외 기여도와 파급효과(30%)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문학의 경우 소수 장르(아동문학)에 대한 지원과 레지던스 사업의 성과 가능성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시각예술은 지역별, 세부장르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극은 국제교류의 상호 협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무용은 세부장르와 해외권역은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통예술은 신진예술가를 배려하여 선정하였다. 통합심의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국제교류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든 예술가들이 이를 통해 한국예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통합 심의위원 일동